

구보타 히로지 Hiroji KUBOTA

아시아를 사랑한 매그넘 작가 Magnum photographer who loves Asia



불교 성지 황금바위, 짜익티요, 미얀마

1978

다이-트랜스퍼

14 9/16x21 3/4 inch

전시개요

전 시 명 : 구보타 히로지, 아시아를 사랑한 매그넘 작가

전시기간 : 2018년 3월 10일(토) - 4월 22일(일) , 44일 간

전시장소 : 학교재갤러리 전관 (본관, 신관)

문 의 : 02-720-1524~6

출 품 작 : 사진 109점

주최·주관

학교재, (주)유로포토/매그넘한국에이전트

협 찬

© Canon Inc., © FUJIFILM Corporation, 시몬즈0914

담 당

우정우 wcw@hakgojae.com

박미란 miran@hakgojae.com

02-720-1524~6

보도자료

www.webhard.co.kr (Id: hakgojaeart, PW: guest)

보도자료 폴더 내

20180310-20180422_구보타 히로지

1. 전시개요

학교재는 2018년 3월 10일(토)부터 4월 22일(일)까지 구보타 히로지 Hiroji KUBOTA (b. 1939, 도쿄) 개인전을 연다. 구보타 히로지는 세계적 사진가 그룹인 '매그넘 Magnum'의 대표적인 사진작가다. 기록자로서, 관찰자로서 아시아 대륙의 곳곳을 탐험하며 카메라에 담았다. 학교재는 이번 전시에서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구보타 히로지의 작품세계를 총망라해 선보인다. 1988년과 2008년에 국내에서 작품을 소개한 적은 있었지만, 작품 활동 50년을 아우르는 대규모의 회고전을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보타 히로지의 작품 총 109점을 6개의 소주제로 나누어 선보이며 44일간 학교재 본관, 신관에서 동시에 열린다. 부대행사로 3월 10일(토) 오전 11시에 작가와의 대화를 기획해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이 전시는 학교재와 (주)유로포토/매그넘한국에이전트가 공동 주최·주관하여 기획했다.

2. 전시주제

구보타 히로지의 한국 첫 대규모 회고전 - 50년 작품세계를 한자리에서

이번 전시는 구보타 히로지가 1960년대부터 최근까지 50여년간 세계 각지를 여행하며 촬영한 사진 작품들을 두루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자리다. 각 시대 다양한 문화권의 모습을 기록한 그의 사진은 작품으로서, 역사적 기록물로서 매우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전시에서는 구보타 히로지의 대표작 109 점을 선보인다. 작가의 방대한 작품세계를 '초기 작업', '세계여행', '컬러의 세계', '중국', '한국 & 북한', '미국 & 일본' 등 6개의 소주제로 나누어 살펴본다.

구보타 히로지는 한국과 북한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난 2008년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매그넘 기획 단체전 《매그넘 코리아 - 매그넘이 본 한국》(2008)을 가장 인상 깊은 전시 중 하나로 손꼽을 정도다. 그는 1966년도에 서울을 처음 방문했을 때 한국 사람들의 고상한 인품에 감명받았다. 1978년도에는 북한을 방문하여 그곳의 다양한 생활상을 사진으로 기록했다. 1988년도에는 한겨레 신문사와 함께 사진집 「북녘의 산하: 백두산 금강산 The Famous Mountains of Korea: Paektu and Kumgang」(1988)을 출판하기도 했다. 한국을 상징하는 두 명산의 절경을 다채로이 담은 사진집이다. 이 책에 등장하는 **백두산, 북한** (1987)을 포함해 금강산, 설악산 등 남북의 수려한 명산 풍경들을 이번 전시에서 만나볼 수 있다. 서울 한강 주변을 항공사진으로 촬영한 작품 **서울 항공사진, 한국** (2007)과 1970~90년대 북한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도 다양하게 선보인다.

역사의 관찰자로서, 기록자로서 -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구보타 히로지

정치학과를 졸업한 구보타 히로지가 졸업 후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로 진로를 전향하게 된 배경에는 당시 일본의 사회적 상황이 뒷받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1960년대의 일본은 채 가시지 않은 전쟁의 후유증과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 전례 없는 격동의 시기에 놓여 있었다. 경제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진입하여 도쿄 엑스포(1964)와 일본 만국 박람회(1970)를 연달아 개최하는 등 호황기를 누렸지만, 사회적으로는 계층 간 의식의 변화와 가치관의 충돌이 야기한 혼란스러운 과도기를 겪고 있었다. 이 시기 일본은 세계적으로 학생 운동이 가장 격렬한 나라 중 하나였다. 구보타 히로지 역시 수천 명의 대학생들과 함께 학생 운동에 참가했다. 이때 학생 운동을 취재하던 유명 사진가 하마야 히로시(1915~1999)를 보조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이것이 훗날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로 성장하게 된 첫걸음이었다.

전형적인 다큐멘터리 사진이라 할 수 있는 구보타 히로지의 초, 중기 작업들을 살펴보면, 그가 인물과 장소, 사건들을 중립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기록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한 점이 돋보인다.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당시 사회의 모습을 생생히 보여주는 사진을 찍었다. **흑인 인권운동, 워싱턴 D.C., 미국** (1963), **히피, 캘리포니아 남부, 미국** (1971) 등의 작품에서 그런 면모가 두드러진다. 다양한 국가들을 여행하며 당대에 관한 기록과 해석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구보타 히로지는 자신의 작업이 35mm 렌즈로 바라보는 제한된 프레임 안에 '인물'과 그 인물의 '사회적 풍경'을 함께 담아내는 일이라 말한다. 사진을 통해 대상의 삶과 숙명 전체를 보여줄 수 있는 특수한 순간을 포착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사건'에서 '풍경'으로, 시선의 전환 - 총천연색 세상을 보다

1975 년도에 매그넘의 의뢰로 베트남 사이공 함락을 다룬 사진을 찍은 이후, 구보타 히로지는 미국 반대편 아시아 국가들을 탐험하기로 마음먹었다. 한국, 중국, 일본은 물론 미얀마를 포함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티베트 등 다양한 아시아 국가들을 탐험하며 각 나라의 독특한 문화와 일상생활 모습을 사진에 담았다. 중국에서는 약 45 개 지방을 일주하며 소수민족들의 생활상을 낱낱이 촬영하기도 했다.

1970 년대 후반부터 그의 시선이 '사건'에서 '풍경'으로 옮겨오는 점이 눈에 띈다. 사진의 색상도 기존의 흑백에서 총천연색으로 변화한다. 초기에 구보타 히로지는 화려한 색이 대상에 대한 진솔한 기록을 방해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흑백 사진만을 고집했다. 그러나 미얀마의 황금바위를 촬영한 작품 **불교 성지 황금바위, 짜익티요, 미얀마** (1978)가 색상에 대한 그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구보타 히로지는 이 작품에 대해 '마치 색채가 나를 흔들며 깨우는 듯했다'고 회상한다. 장대한 자연과 다채로운 색상에 매료된 구보타 히로지는 자연 풍경의 모습을 기록하는데 있어 색상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했다. 실제 풍경의 색채를 그대로 담은 컬러 사진이 자연에 대한 더욱 사실적인 기록이 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었다.

구보타 히로지는 풍경 사진이 풍경 그 이상의 것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보기 좋은 풍경을 찍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찍는 이와 찍히는 대상 모두의 삶과 아름다움에 대한 관점을 두루 포괄해야 한다는 말이다. 구보타 히로지는 자신이 다루는 대상들에게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매우 가까이 다가가려 노력한다. 대상을 진실되게 이해하고 그것을 작품에 담아내기 위해서다. 초기 작업들과 비교했을 때 소재뿐만 아니라 작가의 태도 또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객관적인 기록을 위한 사진으로부터 작가 자신의 주관을 담은 사진으로 나아간 것이다.

3. 작품소개

대표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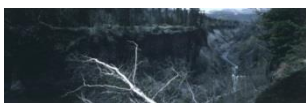
불교 성지 황금바위, 짜익티요, 미얀마
 1978
 다이-트랜스퍼
 14 9/16x21 3/4 inch



만달레이 언덕 앞 소년과 소녀, 미얀마
 1978
 다이-트랜스퍼
 21 15/16x14 3/4 inch



서울 항공사진, 한국
 2007
 피그먼트 프린트
 57 1/16x19 3/8 inch



압록강 상류, 백두산 인근, 북한
 1987
 피그먼트 프린트

구보타 히로지는 1975년 베트남 사이공 함락 취재를 계기로 아시아 국가들을 여행하기로 결심했다. 당시 독재 정권 아래 있던 미얀마는 미국으로부터 어떠한 원조도 받지 않는 동남아시아의 유일한 공산국가였기에 더욱 관심이 컸다. 첫 방문 이후, 구보타 히로지는 미얀마를 주기적으로 찾았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늘 미얀마로 되돌아왔다고 한다. 그는 인내와 관용을 삶의 큰 가치로 여기며 느리고 단순하게 살아가는 이 나라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다. 구보타 히로지는 언젠가 미얀마의 수도승이 되고 싶다고 한다. 단순하고도 엄격한 그들의 생활이 그가 추구하는 삶의 이상과 닮았기 때문이다.

1978년도에 **불교 성지 황금바위, 짜익티요, 미얀마** (1978)를 촬영했다. 당시 들고 간 두 개의 라이카 카메라에는 각각 컬러 필름인 트라이-엑스(Tri-X)와 코닥 크롬 64 (Kodachrome 64)가 들어 있었다. 황홀한 색채의 황금바위를 생생하게 담아낸 이 사진은 흑백 사진에 대한 작가의 오랜 고집을 누그러뜨렸다. 이 작품을 계기로 총천연색 자연 풍경에 매료된 구보타 히로지는 세계 각지를 여행하며 컬러 사진을 촬영하게 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서울 항공사진, 한국** (2007)을 비롯해 백두산, 금강산, 압록강 등 한국과 북한의 풍경을 찍은 사진들을 만나볼 수 있다. 1970~90년대 북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사진들도 다수 출품한다.

구보타 히로지는 1966년도에 서울을 처음으로 방문했다. 크라이슬러 Chrysler 사의 의뢰를 통해서였다. 구보타 히로지는 당시 서울이 경제적으로 발전하지 않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놀랍도록 고상한 인품을 갖추고 있어 인상 깊었다고 회상한다.

57 1/16x19 1/4 inch



백두산, 북한

1987

피그먼트 프린트

57 1/16x18 3/4 inch

1978년도에는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구보타 히로지에게 북한은 그때까지 방문해 본 어떤 나라와도 다른 곳이었다. 어떠한 말과 행동도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강압적인 문화에 내심 놀랐지만, 사진을 찍기 위해 북한의 규율을 잘 지켰다. 그 결과 정부의 신뢰를 얻어 북한 전역을 돌아다니며 당대 북한 사회의 모습을 다양하게 기록할 수 있었다.



평양, 북한

1978

플래티넘 프린트

14x20 15/16 inch



히피, 캘리포니아 남부, 미국

1971

플래티넘 프린트

14x20 15/16 inch

구보타 히로지의 초, 중기 작업들은 정통 다큐멘터리 사진의 양상을 보인다.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중반까지 구보타 히로지는 유학지인 미국과 자국 일본의 사회적, 문화적 주제를 자주 다루었다. 워싱턴 D.C.의 흑인 민권운동 행진 현장을 비롯해 미국 내 급진 흑인운동단체인 흑표범단, 반체제 자연찬미파 히피족의 모습 등 미국에서 목격한 사건과 다양한 인물들을 사진에 담았다. 일본에서는 3대 축제로 꼽히는 산자 마츠리와 신부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여성의 모습, 27년 만에 일본으로의 반환을 앞둔 오키나와의 풍경 등 일본의 일상과 전통문화 등을 기록했다.



사설 신부 학교, 가나가와, 일본

1966

플래티넘 프린트

14x20 15/16 inch

4. 작가소개

구보타 히로지는 1939 년 도쿄에서 태어나 1962 년도에 도쿄 와세다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청년 시절부터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 일본 전역을 가능한 한 많이 여행하려 애썼다. 여행을 통해 새롭게 발견한 세상의 모습을 기록하기 위해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대학 시절에는 학생 운동에 참가하면서 유명 사진가 하마야 히로시(1915~1999)의 취재 활동을 보조했다. 이 일이 구보타 히로지가 사진에 보다 진지한 접근을 시도하게 된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하마야 히로시는 구보타 히로지의 사진에 대한 재능뿐만 아니라 언어적 능력을 매우 높이 평가했다. 당시 일본에서 그의 출중한 영어 실력은 범상치 않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마야 히로시는 1961 년에 일본을 방문한 해외 매그넘 사진작가들에게 구보타 히로지를 소개했다. 이 만남을 통해 사진의 세계와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들의 삶의 방식에 매료된 구보타 히로지는 정치학도의 꿈을 버리고 미국으로 사진 유학을 떠나게 된다. 유학 기간 동안 시카고에서 음식 배달 등으로 어렵게 생계를 꾸리면서도 사진 작업을 꾸준히 했다.

대학 졸업 3 년 후인 1965 년도에 매그넘 사진작가로서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영국 신문 '선데이 타임스'에서 이스트 햄튼에 있는 잭슨 폴록 묘소를 취재하는 업무를 맡은 것이다. 1968 년에 일본으로 귀향했고 1970 년에는 제 1 회 '고단샤 출판문화상'을 수상했다. 이후 일본 사진작가협회의 '넌도 쇼 상'(1982), 마이니치 신문의 '마이니치 예술상'(1983) 등을 받기도 했다. 런던 바비칸 센터, 뉴욕 국제 사진센터, 도쿄후지미술관, 도쿄도 사진미술관 등 국제적으로 명망 높은 기관에서 다수의 개인전을 개최했다. 현재 도쿄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5. 전시서문

***서문에서 4 단어 이상 발췌 시, 글쓴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갤러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아시아를 사랑한 매그넘 작가, 구보타 히로지

이기명 (전시기획자, (주)유로포토/매그넘 한국 에이전트 사장)

“사람의 영혼을 끌어낼 수 있는 사진을 찍고 싶다.”

- 매그넘 작가, 구보타 히로지

아시아 대륙의 곳곳을 촬영하며 아시아를 사랑한 사진작가 구보타 히로지는 일본 유일의 매그넘 작가이다. 그는 아시아 대표 사진작가로서 매그넘의 부회장을 역임할 만큼 매그넘 내에서 아시아에 관하여 최고의 권위자이다. 그의 작품은 뉴욕 국제 사진센터(ICP), 코코란 미술관(워싱턴 소재), 도쿄도 사진미술관, 상하이 미술관, 바비칸 센터(런던 소재) 등에서 전시되었다.

구보타 히로지와 매그넘의 인연은 1961 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22 세의 청년이었던 그는 매그넘 작가, 르네 뷔리(Rene Burri), 엘리엇 어윗(Elliott Erwitt), 버트 글린(Burt Glinn), 브라이언 브레이크(Brian Brake)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에 만남을 가졌다. 그 인연이 계기가 되어 와세다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정치학도의 꿈을 버리고 미국으로 사진 유학의 길을 떠났다. 시카고에 정착한 이후 생계를 꾸리고 사진 작업을 하기 위해 일본 음식 배달 서비스업도 마다하지 않았다. 드디어 1965 년 매그넘 사진작가가 되어 런던의 '선데이 타임스'지로부터 어사인먼트를 받게 되는데, 이스트 햄튼의 잭슨 폴록의 묘소를 취재하는 것이었다. 그는 오로지 사진작가의 길을 걷기 위해 프리랜서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라는 불확실한 직업을 선택했다.

본 전시는 1965 년 첫 취재부터 2003 년 고국 촬영까지 구보타 히로지의 40 년에 걸친 방대한 사진 작업에서 엄선된 109 점의 작품이 회고전으로 전시된다. 전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6 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초기 작업', '세계여행', '컬러의 세계', '중국', '한국 & 북한', '미국 & 일본'으로 디스플레이 하였다. 생존 작가로서 뷰먼트 뉴홀의 '사진의 역사'에 기술된 매그넘 작가, 엘리엇 어윗은 구보타 히로지를 "그의 능력은 기교 없는 관찰이고, 선부른 판정 없는 기록이다."로 평했다. 그는 다큐멘터리 사진을 지향하며 관찰자로서 기록자로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촬영 현장을 담아오고 있다. 이 전시가 구보타 히로지의 작품세계에 관하여 더욱 심오하게 사색할 수 있는 문화의 장이 될 것으로 믿는다.

1. 초기 작업

60년대 중반에서 70년대 중반까지 미국과 일본에서 주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그는 베트남전쟁 반대 운동, 흑인 민권운동, 말콤 엑스의 강경투쟁 노선을 추종했던 급진적인 흑인운동단체인 흑표범단, 반체제 자연찬미파의 히피 등 미국 내 기성의 사회통념, 제도, 가치관을 부정하고 물질문명이나 국가·사회제도로부터 개인의 자유나 인간성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었다. 한편 일본으로 반환을 앞둔 오키나와의 미군과 일본인, 도쿄 산자 마츠리 축제, 신부학교에서 결혼 교육을 받고 있는 젊은 여성 등 일본의 일상과 전통문화를 담았다.

2. 세계여행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후반까지 아시아에 집중하면서 세계를 다녔다. 정통적 다큐멘터리 스타일로 관찰자 입장에서 충실하게 기록했다. 네팔, 방글라데시, 인도, 터키, 홍콩,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태국, 북한, 중국 등 아시아 국가와 스페인, 아일랜드, 요르단, 예루살렘, 영국을 촬영했다.

그의 흑백 다큐멘터리 사진은 당대에 관한 다양한 기록, 해석, 전망의 장을 마련했으며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사회 탐구에 주목하였다. 사회, 역사, 문화, 환경, 종교, 삶 등에 대한 연구라고 덧붙일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사진은 아시아 사회 제 현상의 패턴을 정의하여 보다 깊은 시대의 중요한 역사기록을 제공한다.

3. 컬러의 세계

구보타 히로지에 있어서 컬러에 관한 사실성의 새로운 인식은 70년대 후반 미얀마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1978년 미얀마의 불교 성지인 황금바위 촬영을 계기로 컬러에 매료되어 흑백사진에서 컬러사진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것은 컬러가 현실 밖의 환상적이며 현란하고 황홀한 것이라는 편견에 대한 반성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세상의 모든 것은 흑백이 아니라 컬러로 이루어져 있다는 색에 대한 자각이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는 흑백사진이 비사실적이며 오히려 컬러사진이 사실적이라는 발상의 전환을 가져왔다. 이 시기 미얀마를 중심으로 작업을 하면서 다른 아시아 국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으로 컬러 작업을 확대해 나갔다.

4. 중국

중국 문화대혁명 이후,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45곳이 넘는 지방을 일주하며 중국의 모든 지역과 소외된 소수민족 티베트족, 위구르족, 몽골족, 후이족 등을 1000일에 걸쳐 낱알이 촬영함으로써 중국 격동의 시기를 기록한 귀중한 아카이브를 남겼다. 그는 중국의 전통과

함께 발전에도 강조점을 두어 보존과 개발에 균형점을 찾고자 노력하였으며 종종 항공사진 촬영으로 광활한 중국을 강조했다. 이 작업은 7 개 국어판으로 사진집이 발행되고 세계 순회전을 개최하는 성과를 거뒀다.

5. 한국 & 북한

구보타 히로지는 한국 그리고 북한과 인연이 깊다. 한국의 첫 촬영이 1966 년이고 북한의 첫 촬영이 1978 년이다. 특히 외국인으로서는 드물게 북한의 상당 지역을 촬영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아 비교적 자유롭게 촬영하였으며 김일성 주석을 직접 만날 만큼 신뢰를 얻었다. 희로애락의 감정을 담은 북한 주민의 일상, 대규모 퍼레이드 등 전체주의 국가의 획일성도 담았다. 우리 민족의 정기가 감도는 백두산, 금강산, 설악산, 내장산 등 남북한의 명산의 장대함을 표현한 작품은 엄숙미를 자아낸다. 그리고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한국의 발전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자 전반적으로 한강권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항공촬영을 하였다.

6. 미국 & 일본

그의 사진적 출발은 미국과 일본이었는데 돌아와 미국과 일본 작업으로 끝을 맺는다.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 500 주년을 계기로, 90 년대 미대륙을, 2000 년대 고국인 일본 전 지역을 각각 4 년에 걸쳐 작업했다. 그의 작품에서 컬러는 정보적 차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차원에서 중요한 코드이다. 그는 컬러로 감정이나 분위기를 표현하고 나아가 컬러로 한층 더 강한 감정 이입을 시도하고 있다. 컬러가 사람의 감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실감나게 하는 사진들이다.

그의 초, 중기 작업은 전통적인 다큐멘터리 사진으로 인간과 장소 그리고 사건에 대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을 시도해 왔다. 90 년대 이후 후기 작품에서 개인적 시각과 표현이 실제적인 정보 못지않게 강조되고 있다. 그의 사진은 예술과 다큐멘터리 사이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6. 작가약력

구보타 히로지

1939 도쿄 출생
1962 도쿄 와세다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전 매그넘 부회장 역임
현재 도쿄에서 거주 및 작업

주요 개인전

- 2018** 구보타 히로지, 아시아를 사랑한 매그넘 작가, 학고재, 서울
- 2017 사진가 구보타 히로지, 선다람 타고르 갤러리 (길만 버락), 싱가포르
- 2016 오스트리치 사진 갤러리, 빈
더 스토리 오브 록킹, 중앙미술학원, 베이징,
- 2015 사진가 구보타 히로지, 어퍼쳐 갤러리, 뉴욕; 선다람 타고르 갤러리, 뉴욕
- 2009 아시아의 초상: 다이 트랜스퍼 프린트 컬렉션, 키요사토사진미술관, 야마나시, 일본
- 2001 우리가 스스로를 벗어날 수 있을까? - 아시아를 중심으로, 구보타 히로지의 사진,
아시아 소사이어티, 뉴욕
- 1997 동쪽 너머: 아시아를 찍은 구보타 히로지의 최근 사진, 이퀴터블 갤러리, 뉴욕; 도쿄도
사진미술관, 도쿄
- 1992 태평양에서 대서양까지: 미국의 초상, 코코란 미술관, 워싱턴 D.C.
- 1991 중국: 구보타 히로지 사진전, 도쿄후지미술관, 도쿄
- 1988 한국: 38 선 위, 뉴욕 국제 사진센터, 뉴욕
북녘의 산하: 북한사진전, 코엑스, 서울
- 1985-90 온 차이나, 뉴욕 국제 사진 센터, 뉴욕; 마츠야 긴자, 도쿄; 다이마루우메다, 오사카,
일본; 스미스소니언 국립자연사박물관, 워싱턴 D.C.; 중국미술관, 베이징; 상하이 미술관,
상하이; 바비칸 센터, 런던; 오스트리아 미술관, 빈; 밴쿠버 아트갤러리, 캐나다 등

주요 단체전

- 2008 매그넘 코리아 - 매그넘이 본 한국, 예술의전당, 서울
- 2001 우리가 스스로를 벗어날 수 있을까? - 구보타 히로지와 존 빙크의 사진, 동양 아프리카
연구 학원 (런던대학교), 런던

1999 중국: 인민공화국에서의 50 년, 아시아 소사이어티, 뉴욕

수상

1983 마이니치 예술상, 마이니치 신문, 일본

1982 낸도 쇼 상, 일본 사진작가협회, 일본

1970 제 1 회 고단샤 출판문화상, 주식회사 고단샤, 일본